

책과 방송의 상생을 향한 발걸음

누군가 '책' 을 두고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원조라고 했다. 영화에 붙이면 영화의 원작이 되고, TV 드라마에 붙이면 드라마의 원작이 된다. 어디 그뿐인가. 책에서 영화로, 다시 게임으로 그리고 캐릭터 상품 등으로 확장과 진보를 거듭하는 것이 바로 책이다. 그러나 책이 그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를 묻는다면, 단박에 'yes' 라고는 답하지 못한다.

TV와 라디오로 대표되는 방송에서도 책은 책 구실을 못한다. 한두 프로그램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도 (느낌표) 류의 센세이션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시청률 혹은 청취율에 목을 매야 하는 방송의 생리상 책은 그다지 매력적인 매체는 아니다. 톡톡 튀어야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종이책이 주는 근엄함은 일종의 터부처럼 느껴질 터이기 때문이다.

퓨전 시대다. 혹은 하이브리드 시대라 해도 좋다. 지금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불황에 빠진 출판계에서 그나마 팔리는 책은 TV와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책들이라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걸 퓨전 혹은 하이브리드라 부를 수는 없다. 정치계 인사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상생' 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책이 진정으로 원하는 퓨전 혹은 하이브리드, 상생은 책의 진정한 가치가 TV와 라디오로 대표되는 미디어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책과 방송을 그 접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분위기다. 그러나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다행스러운 뿐이다. <출판저널> 10월호에서는 책과 방송의 상생을 향한 작은 걸음들을 따라가 보았다.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독자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김민**

글_장동석 기자